



가스펠
프로젝트

CHRONOLOGICAL
예수로 읽는 연대기 성경공부

“위대한 복음
The Rescue Begins”

08. 거듭남
Born Again

신약01 | New Testament 01

08

두번째 이야기 Second Story

07.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The Calling of the Disciples

예수님이 제자로 초청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 Jesus invites ordinary people to follow Him.

08. 거듭남

Born Again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의 비밀을 배우다. Nicodemus encounters Jesus and learns about the new birth.

09. 쇠해 가는 요한의 사역

The Eclipse of John's Ministry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 | John the Baptist points others to Jesus.

10. 우물가의 여인

The Woman at the Well

예수님이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시다. | Jesus reaches out to the outcasts of society.

11.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Hometown Opposition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쫓겨나시다. | Jesus makes plain His identity and is rejected in His hometown.

12. 나무에 오르는 삭개오

Zacchaeus and the Sycamore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다. | Jesus has come to seek and save the lost.

이 회색 세로줄이 있는 단락은 일반 교재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Every time you see this bar in this booklet, it indicates the same material is also found in the personal study guide as well.

08 니고데모와 거듭남 | Nicodemus and the New Birth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고?)

요약 | Summary

이 과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거듭남의 신비에 관해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거듭납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This session depicts a conversation in which Jesus taught a religious leader, Nicodemus, about the mystery of regeneration—what He described as “being born again.” Christians have been born again by the Spirit of God, through faith in God’s Son. The new birth is the basis of our confidence that God is at work transforming us and all who believe in the gospel.

성경 | Scripture

요한복음 3장 1-21절
John 3:1-21

포인트 | The Point

‘거듭남’이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말한다.
Regeneration is God’s supernatural transformation of believers.

등장인물 | Characters

- 예수님(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Jesus: the eternal Son of God;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 니고데모(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구원에 관해 물은 것으로 유명함)
Nicodemus: a ruler from the Pharisees; Nicodemus was known for seeking Jesus at night to ask questions about salvation.

메세지 좌표 | Plot

이 과에서는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의 신비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묘사하시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Today’s session takes us to a private conversation between Jesus and a religious leader named Nicodemus. Jesus taught this religious leader about the mystery of regeneration, what He described as “being born again,” and how new birth was necessary to be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Intro

5-10분 | 5-10 minutes

A.

장난감 광고는 역동적인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장면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대개 광고 끝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본 제품에는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전지 없음’이라는 공지를 보지 못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건전지가 들어 있지 않은 장난감을 선물한다면 어떨까요? 부모는 민망해지고 아이는 속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광고를 보고 기대감이 잔뜩 부풀었는데, 건전지가 없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한순간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망한 적이 있나요?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에는 장난감 광고처럼 실망감을 안겨 주는 ‘건전지 없음’같은 공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좋은 소식은 죄 사함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적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롬 8:9-13).

Toy commercials are usually filled with action. They show kids having fun as they play with whatever product is being promoted. They highlight the gadget’s best features in a way that appeals to a child’s sense of imagination. But at the end, a narrator usually comes on and makes a disclaimer: “Batteries not included.”

Most likely, there were numerous occasions when well-meaning parents or guardians purchased a toy their child wanted without realizing there were no batteries in the box—unbearable disappointment in the eyes of a child! The kid feels duped, the parent is embarrassed, and the moment of bliss fades away because the toy can’t function.

→ ***When have you been disappointed by something not functioning as you thought it would? What was the reason for the item’s inability to function?***

As Christians, we believe salvation is a gift. God our Father has shown us grace in giving us salvation. But unlike those disappointing toy commercials, this gift doesn’t need a disclaimer that says “batteries are not included.”

The good news about God’s gift is that, alongside forgiveness of sins, we receive the Holy Spirit. He is the One who empowers us to live according to God’s Word. The spiritual batteries of the Christian life are included, because the Holy Spirit takes up residence in us and gives us strength to walk rightly before God and others (Rom. 8:9-13).

B.

영화 ‘트랜스포머’는 착한 로봇인 오토봇을 따라 줄거리가 진행됩니다. 오토봇은 자동차나 트럭이나 헬리콥터나 그 밖의 다른 기계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 ‘변신 로봇’을 뜻하는 ‘트랜스포머’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영적 변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됩니다. 이 같은 새로운 탄생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후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The storyline of Transformers follows the Autobots (the “good” robots)—who transform into cars, trucks, helicopters, and other machines—as they try to keep the world safe from the Decepticons (the “bad” robots, who also transform into different machines as needed). These robotic characters are featured in books, TV shows, movies, and comics, and they are frequently introduced as, “Transformers: More than Meets the Eye.”¹

→ ***What comes to mind when you hear the word Transformers? What do you know about the movies, TV shows, books, or comics?***

As with the Transformers, there’s “more than meets the eye” with our spiritual transformation. Though we do not physically transform when we’re “born again” into God’s family, our hearts and lives are transformed as a result of His grace and love for us. This new birth is a spiritual renewal that occurs on the inside and displays itself in our words and actions.

→ ***In what ways has your life changed since you trusted Jesus as your Saviour?***

HIS STORY

20-30분 | 20-30 minutes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야기
God's story of Redemption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01. 성령님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 NICODEMUS LEARNS OF THE NEW BIRTH (니고데모 할아버지도 몰라!)

요한복음 3장에서 복음서 기자가 흥미로운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1-3)

니고데모는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그분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자 도덕적인 사람으로 봤습니다. 즉 삶의 귀감이 될 만한 인물 정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통명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찬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그 대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다시 태어나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요 3:4-10)

니고데모가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기에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주님의 계획도 이미 알고 있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 또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더 잘 체험하고 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은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양육 받았거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데 더 유리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적 관심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의미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과 연결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내밀한 정보를 얻을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In John 3, the writer of the Gospel introduced an interesting man who came to see Jesus at night. He was a Pharisee, and his name was Nicodemus.

1 Now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ruler of the Jews. 2 This man came to Jesus by night and said to him,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come from God, for no one can do these signs that you do unless God is with him.” 3 Jesus answered him,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John 3:1-3)

Nicodemus met with Jesus at night, maybe so his meeting wouldn't be noticed by other Pharisees, or maybe because this was the best time for this kind of conversation. Whatever his motivations, Nicodemus sought out Jesus and met with Him.

As their conversation began, Nicodemus affirmed Jesus' ministry of teaching and healing. He recognized that Jesus had the blessing of God on His ministry and complimented Jesus for the signs He performed. That's as far as Nicodemus went in attributing any special role to Jesus. It's clear that he saw Jesus as a good teacher, a moral person, and perhaps even a model of how people should live.

Jesus' response was abrupt. He didn't accept the compliments Nicodemus gave. Instead, He simply said no one would see the kingdom of God without being born again. In other words, unless you are reborn and made new, you will not see God's salvation.

Nicodemus didn't understand what Jesus' reply meant. So, he followed up with a question.

4 Nicodemus said to him,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Can he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and be born?” 5 Jesus answere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6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7 Do not marvel that I said to you, ‘You must be born again.’ 8 The wind blows where it wishes, and you hear its sound, but you do not know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goes. So it is with everyone who is born of the Spirit.” 9 Nicodemus said to him, “How can these things be?” 10 Jesus answered him, “Are you the teacher of Israel and yet you do not understand these things?” (John 3:4-10)

Nicodemus' question was sincere. Because he did not understand what Jesus taught, he asked Him to clarify. Jesus did indeed clarify His initial statement. He revealed to Nicodemus that “new birth” is essential for entering into and experiencing the kingdom of God. People don't come into this new relationship with God by simply being spiritual but by yielding to the Holy Spirit. Jesus connected the reality of being “born again” to the necessity of being born of the Spirit. Nicodemus didn't need inside knowledge from Jesus; he needed new birth from the Spirit.

02.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 THE NEW BIRTH COMES THROUGH FAITH (믿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시면서 거듭남과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새롭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증언을 거부하고 있던 것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증언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나의 가르침에 관해서는 찬사를 보낼 수 있겠는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1-15)

예수님은 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대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임을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 주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대화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민수기 21장 4-9절을 니고데모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불행한 처지를 불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자신들을 일부러 광야로 데려와 죽게 하신다고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하나님이 그들 중에 불뱀을 보내어 벌하셨습니다. 뱀들이 사납게 물어 대자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에게 뱀을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상징이었던 뱀을 올려다보는 자마다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인 자신을 뱀에 비유하셨습니다. 죄와 죄책감과 수치심의 무게를 친히 짊어지실 순간이 올 것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여 주는 상징인 동시에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The conversation between Nicodemus and Jesus continued, but now Jesus took the lead and began to explain further the “new birth” and its significance. This new and everlasting life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Take a look:

11 Truly, truly, I say to you,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bear witness to what we have seen, but you do not receive our testimony. 12 If I have told you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can you believe if I tell you heavenly things? 13 No one has ascended into heaven except he who descended from heaven, the Son of Man. 14 An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15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John 3:11-15)

Until that point the religious leaders had rejected Jesus’ testimony, which raised an important question: How could the religious leaders compliment Jesus for His teaching on any matter if they rejected His testimony about Himself?

Jesus didn’t wait for an answer. Instead, He claimed to be the One who had descended to earth from heaven. Jesus is the Son of God who took on human flesh in order to reveal the character of God to the world.

That’s when this conversation took a surprising turn. Jesus reminded Nicodemus of a story in the

Old Testament, found in Numbers 21:4-9. The Israelites were grumbling about their circumstances, after God had brought them out of Egypt. They hated the food God gave them in the wilderness. They accused God of having bad intentions and claimed that God took them out there to die.

The Lord grew angry with the Israelites and punished them by sending serpents into the camp. The plague of serpents was fierce, and the people began to repent. To save the people from the effects of their sin, God told Moses to put a bronze snake on a pole. Anyone who looked at the snake—who gazed upon that symbol of evil—would be healed.

Jesus compared Himself (the Son of Man) to that snake. He pointed forward to the moment when He would take upon Himself the weight of our sin, guilt, and shame. The cross would be the symbol of just how evil our sin is, and it would be the source of our salvation.

What did Jesus mean when He said He would be “lifted up”? Why is it important that He was “lifted up”?

03.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 THE NEW BIRTH IS THE RESULT OF GOD’S LOVE FOR HUMANITY (사랑하니까 거듭나란 말이야!)

니고데모에게 영생과 거듭남에 관해 가르치신 예수님은 또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온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본 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전체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 3:16-21)

여기서의 초점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이때 사랑은 자기희생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세상에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채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즉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내어 주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살인죄로 체포된 범죄자가 법정에서 죄가 입증되어 선고를 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아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즉 불신자는 유죄가 확정되어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러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형 집행을 이미 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신앙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이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We've seen how Jesus instructed Nicodemus concerning eternal life and the need for new birth. Then, Jesus spoke some of the most famous words in the Bible, words that sum up the good news of God's love for the world. Take a moment to consider all that we have covered up until this point, and then read the verses after John 3:16 so you can see the verse in context.

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17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in order tha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18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Son of God. 19 And this is the judgment: the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and people loved the darkness rather than the light because their works were evil. 20 For everyone who does wicked things hates the light and does not come to the light, lest his works should be exposed. 21 But whoever does what is true comes 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clearly seen that his works have been carried out in God.” (John 3:16-21)

The focus here is on how God loved the world, and the love described here is self-sacrificing. Romans 5:8 tells us that God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by sending His Son, Jesus, to seek and save the lost by dying for us—while we were still in sin, separated from Him. John 3:16 reminds us that God gave Himself, in the person of His Son, to take the place of sinners like you and me.

John claims that those who reject Jesus already stand condemned before God. It's similar to a criminal who has been arrested for murder, pled not guilty, went to trial and was found guilty, received sentencing, and is now living on death row awaiting the execution sentence that's been delivered. That time from the convicting and sentencing until the time that the execution takes place is similar to the state of nonbelieving humanity. We've been condemned by our sin; all we wait for now is our execution.

The good news is that Christ came to be executed in our place. When we trust in Jesus, we are accepting God's plea bargain, which expresses the truth that Jesus has already taken the execution sentence in our place. By grace through faith, we can be set free from the prison of sin and be given a new life in Christ because the sentence has been carried out.

알짹 교리 99: 거듭남 | 99 Essential Doctrines: Regeneration

거듭남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나 또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요 3:3-8; 딤후 3:5). 이것은 거룩한 회심(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돌아옴)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 거하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Regeneration takes place at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life and is the miraculous transformation, or the new birth, that takes place within an individual through the supernatural work of the Holy Spirit (John 3:3-8; Titus 3:5). It is the divine side of conversion (a person turning to Christ in repentance and faith), being the work of God within a person's life that causes him or her to be born again, a work that human effort is unable to produce.

그리스도와 의 연결 | Christ Connection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상처를 민간요법으로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뱀뱀을 쳐다보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도 높이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로부터 오는 고통을 치유받고, 죽음의 형벌을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앞부분에서부터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13절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는 자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한 삶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이를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In Moses' day, there was no cure apart from God's instruction. The people could have tried their homemade remedies to save themselves from the serpents' bites, but none of those remedies would have had any effect. There was only way to be healed, and it was through gazing upon the bronze snake lifted high on the pole. In a similar way, Jesus explained that He too would be lifted up. The only way for people to receive eternal life—healing from the sickness of sin and pardon from the penalty of death—would be to gaze upon Him in faith.

Earlier in the Gospel, the apostle John made it clear that God is the sole supplier of salvation. John 1:12-13 says that those who receive Christ also receive the right to be God's children. Only those who hear the gospel and look to Jesus alone as their sole means of salvation, believe in His teachings, perfect life, substitute death, and resurrection will be born again.

YOUR STORY

10-15분 | 10-15 minutes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는 곳 | *Where your story meets His.*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나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면서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 어떤 사람의 정체성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증언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속이고 불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증언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도덕적으로 선한 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지도자라고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덕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도덕적인 분이셨으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선언 또한 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믿음’이란 단어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문은 믿음의 의미에 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God's Story has always been designed to connect with your story. It is because of His Story that our stories make sense, have meaning, and carry on into eternity. Use the questions below to help think through how His Story connects with your own.

- ***What is the connection between a person's identity and the value of their testimony?***
If people demonstrate a track record of honesty and integrity, then the value of his or her testimony increases. On the other hand, if people have a history of deceit and dishonesty, then their testimony will naturally be called into question.
- ***How would you respond to someone who says they consult Jesus as a good moral guide, but they do not recognize Him as the Son of God?***
One could point out the inconsistency of affirming Jesus as a great moral leader but denying His claims to be the divine Son of God, through whom salvation is found. If He isn't who He claimed to be, then He can't be very moral in making the claim. However, since He is moral by all accounts, the people should take His claims as the Son of God to be true.
- ***How would you explain the words "faith" and "believe" from a biblical perspective?***
Having faith is another way of saying one believes that Jesus is who He says He is, and that by trusting in Him one can have forgiveness of sin.

- ***What similar words would you use? How does this passage illustrate the meaning of faith?***

Answers will vary.

YOUR MISSION

10-15분 | 10-15 minutes

생각 | Head

니고데모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자신이 종교 지도자이므로 하나님과 동행해 왔다고 쉬이 믿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주님의 계획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더 잘 체험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처럼 교회에서 양육 받았거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나아가는 데 더 유리하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 니고데모가 자신의 삶에서 놓쳤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유대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 맺는 법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Nicodemus wasn't all that different from many religious people today. Maybe he assumed that since he was a religious leader, he automatically had a right standing with God or already knew God's plan for bringing His kingdom. Maybe he assumed that his religious observance gave him a better position from which to interpret and experience God's mighty works. Like him, it's easy for people who have been raised in church, or who have some sort of faith in God, to believe that they have an inside track to God and His ways. But if this account teaches us anything, it teaches us about the necessity of coming to God on His terms, and not our own.

- ***What was missing in the life of Nicodemus?***
He had religion, but he knew something was still missing, namely,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 ***How does Jesus' interaction with Nicodemus provide a model for how we engage with those who are religious but not committed to Christ?***
Answers will vary.

마음 | Heart

안타깝게도 본문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지은 채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거나 어둠의 행실을 추구하면서도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곡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 주님이 빛을 비추어 속속들이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 삶의 어떤 부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불편해지나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 그 불편한 부분에 구원의 은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Unfortunately, as this passage shows us, humans naturally love darkness (the sinful deeds and lifestyle we're born into) rather than the light, Jesus Christ. We live in a society where people entertain the false understanding that one can have Jesus plus their sin, or have Jesus as their light even while they pursue the deeds of darkness. But this passage shows us the reality of what life looks like for those who have embraced Jesus. Those who come to Jesus want His light to expose all of their lives so that He can continue His work of renovating us from the inside out.

- ***In what areas of your life does it feel uncomfortable for the light of Christ to shine?***
Answers will vary.
- ***How does God's gift of salvation impact these areas of your life?***
Answers will vary.

행동 | Hands

거듭남은 인간의 자연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나 기독교에 익숙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었듯이,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구원이 우리 지식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음을 알고 위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경은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역할을 강조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롬 10:17).

The work of regeneration is a supernatural work of God, not the natural work of man. Yet the responsibility of getting the message of the gospel out is the work God has called every believer to participate in. We should never assume that because people are familiar with church, Christianity, or even religion, that they know Jesus as their Saviour. God has called every believer to trust in His

power as we are transformed by the Holy Spirit.

- ***How encouraging is it to know that salvation is not dependent upon how persuasive you are or how much you know, but is instead the work of God in a person's heart?***

Answers will vary.

- ***Even though salvation is God's work, why do you think the Bible stresses our role in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Because faith comes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Rom. 10:17).